

노인의 성태도가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 특성의 조절효과

신선화¹ · 박효정²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¹,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부²

Effect of Sexual Attitude of Aged People on Sexual Life: Moderating Effect of General Characteristics

Shin, Sun Hwa¹ · Park, Hyojung²

¹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²Division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sexual attitude among the elderly to their sexual life while exploring the moderating effect of general characteristic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attitude and sexual life. **Methods:** A descriptive research design was used. The subjects were 322 married elderly from four silver centers in Seoul and Gangwon-do. Aging Sexuality Attitude Scale developed by White (1982) was used to examine sexual life status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gender, age, academic background, religion, economic status, and residential type). For data analysis, χ^2 -test, t-test, and ANOVA were conducted. Since the dependent variable of sexual life is a binary variable,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was implemented. **Results:** There were 180 people (55.9%) who had a sexual life. Depending on gender ($\chi^2=35.03$, $p<.001$), academic background ($\chi^2=29.45$, $p<.001$), and economic status ($\chi^2=7.36$, $p=.025$), the subjec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terms of sexual life. Regarding sexual attitude, the subjec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gender ($t=-5.47$, $p<.001$), age ($t=-2.31$, $p=.021$), academic background ($t=5.16$, $p<.001$), economic status ($F=3.17$, $p=.043$), and sexual life status ($t=4.99$, $p<.001$).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devise the sex education program in consideration of gender, age, and academic background that showed moderating effects.

Key Words: Aging, Sexuality, Attitude, Sexual behavior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으로 인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노년기에 이르면 노화현상으

로 인한 신체 기능의 저하를 경험하며, 직장에서의 은퇴, 배우자와의 사별 또는 이혼, 자녀들의 출가 등으로 사회적 역할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국가에서는 노후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연금제도, 보건의료, 일자리 확충,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운영, 여가복지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 효 문화 확산 등의 부양체계 개선 및 확충을 통한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어: 노인, 성, 태도, 성 생활

Corresponding author: Park, Hyojung

Division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Tel: +82-2-3277-2824, Fax: +82-2-3277-2850, E-mail: hyojungp@ewha.ac.kr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1-0009799).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est)(2011-0009799).

Received: Mar 5, 2014 / Revised: May 23, 2014 / Accepted: Jun 5, 2014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2013). 그러나 노후생활에서 중요한 '노인의 성' 문제는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여전히 제한적이다. 고령화 사회의 경향은 과거에 언급되지 않았던 노인의 이성교제나 성 생활 및 성 만족에 대한 개념을 변화시키고, 더불어 노인을 중심으로 한 사회공동체 문화 형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최근 노인의 성 생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규칙적인 성 생활은 노인에게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심리적 만족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Lee & Lee, 2009; Lindau & Gavrilova, 2010; Youn, 2004). 우리나라의 경우 보수적인 유교사상으로 인해 노인의 성에 대한 은폐와 억압이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나, 성에 대한 개방화 물결로 인해 한국 문화에서도 노인의 성에 대한 주제가 오락, 예술, 영화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Kweon, 2002). 노인의 성 생활 실태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성은 67.0%, 여성은 39.5%가 성 생활을 유지하였고(Lindau, Schumm, Laumann, Levinson, O'Muircheartaigh, & Waite, 2007),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 197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남성은 47%에서 66%로, 여성은 12%에서 34%로 성 생활의 증가를 보고하였다(Beckman, Waern, Ostling, Sundh, & Skoog, 2014). 국내에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성병인지도 조사에서 남성은 87.1%, 여성은 12.9%가 성 생활을 한다고 하였고, 55.3%가 성병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하였다(Park, 2013). 또한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성 안전실태 조사에서는 62.4%(312명)가 성 생활을 하였으며 성 생활을 하는 노인 중 성매매 경험 비율이 46.5%(145명)를 차지하였다(Lee, 2012). 노인들의 성 문제를 음성화하고 노인의 성적 충동과 성범죄의 잠재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 반사회적 일탈 행위, 아동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성병과 성매매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Jung & Na, 2004). 노인의 성 문제는 일부 노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이라는 원초적 욕구를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으므로, 노인의 성에 대한 가치관과 신념을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노년기에는 젊은 시절에 비해 성 행위의 빈도는 감소하지만, 노년의 성 생활은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Penhollow, Young, & Denny, 2009; Rheume & Mitty, 2008), 안전하고 건전한 성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은 성 생활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삶의 활력소로써 자신감을 갖게 된다(Cho, 2011; Lee & Kim, 2009). 대부분의 노인들은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키

스하는 것 등으로 성적 관계를 유지하였고(Ginsberg, Pomerantz, & Kramer-Feeley, 2005), 노년기에 상실되는 사회적 관계를 대신하여 인간적인 친밀감, 애정, 상호작용으로 표현되었다(Youn, 2004). 노인의 성을 육체적 성 관계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친밀한 교감으로 다루어야 하며, 다양한 표현방법과 의사소통을 통해 자연스러운 행위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인 대상의 성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의 건전한 성 문화 정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국민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의 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노년의 성 생활 및 성 만족도와 관계가 있는 요인으로 남녀의 성별(Gang & Park, 2003; Lee, 2010; Lee, Lee, & Kim, 2013; Park, 2013; Suh, 2012; Syme, Klonoff, Macera, & Brodine, 2012; Yoo, 2009), 연령(Jeong, 2009; Lee et al., 2013; Park, 2013; Yoo, 2009), 학력(Jeong, 2009; Park, 2013; Yoo, 2009), 경제상태(Park, 2013; Yoo, 2009), 건강상태(Beckman et al., 2014; Jeong, 2009; Lee et al., 2013; Park, 2013), 성 태도(Beckman et al., 2014; Ra & Kim, 2011)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노인의 개방적인 성 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만 보수적인 성 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노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Ra & Kim, 2011). 노인의 성에 대한 태도와 행위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은 여성에 비해 성 행위 빈도가 높고 성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Gang & Park, 2003; Lee et al., 2013; Park, 2013; Yoo, 2009), 연령대에 따라서 성 파트너, 성 행위 빈도, 성 관련 문제, 성 태도에 차이가 있었다(Waite, Laumann, Das, & Schumm, 2009). 이와 같은 선행연구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노인의 성 태도가 성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절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의 성 생활 만족도와 관련하여 성 태도가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고 있으며(Ra & Kim, 2011),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생활 수준에 차이를 여러 연구에서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성 태도가 성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성 태도와 성 생활 간의 관계에서 일반적 특성의 조절 효과를 탐색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노인의 성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탐색한다.

- 노인의 성 태도가 성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반적 특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노인의 성 태도와 성 생활과의 관계에서 일반적 특성의 조절효과를 탐색적으로 검증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비교 조사연구이다. 대상자는 서울과 강원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유배우자 노인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현재 배우자가 있어 성 생활에 제약이 없는 노인, 한국어 사용이 가능하며 한국 국적인 노인, 인지장애가 없어 설문지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노인으로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노인 중에서 연구목적 및 설문 실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한 노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 수 산정은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양측검정, Odds ratio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로 설정할 경우, 필요한 최소 표본의 수는 242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330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8명을 제외하여 322명(97.6%)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1) 노인 성 태도

노인의 성 태도는 White (1982)가 개발한 Aging Sexuality Knowledge and Attitude Scale (ASKAS)을 Korea Gerontology Forum (2010)에서 발행한 노년학 척도집의 한국어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성 태도는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7점 척도(‘동의하지 않는다’를 1점, ‘동의한다’를 7점)로 처리하여 최저 26점에서 최고 18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지역 사회의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성 태도의 Cronbach's $\alpha = .87$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72$ 였다.

2) 일반적 특성 및 성 생활

대상자의 성 태도 및 성 생활과 관련하여 주요 일반적 특성은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성별, 연령, 학력, 종교, 경제상태, 거주형태 및 성 생활 여부를 조사하였다. 연령은 노인인구에

서 건강보험 재정지출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75세를 기준으로 ‘75세 미만’과 ‘75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2013). 학력은 ‘무학’, ‘국·초졸’, ‘중졸’, ‘고졸’, ‘대학 이상’으로 조사하여 분석을 위해 ‘중졸 이하’ 집단과 ‘고졸 이상’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종교는 ‘유’, ‘무’로 조사하였으며, 경제상태는 ‘상(넉넉하다)’, ‘중(보통이다)’, ‘하(넉넉하지 못하다)’로 하였다. 거주 유형은 ‘노부부만 산다’와 ‘자녀와 동거한다’로 질문하였다. 성 생활에 대한 조사는 ‘현재 성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로 질문하여 성 생활 여부를 조사하였다.

3.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2013년 6월에 E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 승인(IRB No: 2013-53-6)을 받았다.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와 강원도에 소재한 노인복지시설 4곳의 기관을 찾아가 기관장의 허락을 받은 후 모집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설문을 실시하기 위한 날짜와 장소를 공지한 후 노인복지시설 당 2~3차례 방문하여 설문을 수행하였다.

본 조사의 설문은 민감한 성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에 자발적 참여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스스로 설문을 읽고 작성하도록 공간과 시간을 배려하였다. 그러나 설문조사 시 신체적 불편으로 인해 작성이 어려운 대상자는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연구 보조자가 옆에서 응답한 답안을 표기하였다. 연구 보조자는 13명이 모집되었으며, 각 기관마다 5~6명의 연구 보조자들이 연구자와 함께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시행 전에 연구 보조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설문 내용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설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한 설명을 하였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응답한 내용의 비밀 보장과 중도에 포기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모든 문항에 응답을 완료한 설문지는 밀봉 봉투에 담아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고,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으로 칫솔, 치약 세트를 제공하였다.

4. 자료분석

모든 통계 분석은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의 빈도분석과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생활 여부와 성 태도의 차이는

χ^2 -test와 t-test 및 분산분석(ANOVA)을 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é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성 생활 여부의 종속변수가 이분형 변수이므로 연구변수들의 영향과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모든 통계적 분석은 유의수준 .05로 판단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성은 209명(64.9%), 여성은 113명(35.1%)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72.58 ± 5.14 세이었고, 75세 미만은 210명(65.2%), 75세 이상은 112명(34.8%)이었다. 교육정도는 중학교 졸업 이하가 145명(45.0%),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177명(55.0%)이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는 244명(75.8%), 없는 경우는 78명(24.2%)이었으며, 경제 상태는 상수준이 35명(10.9%), 중수준이 236명(73.5%), 하수준이 50명(15.6%)이었다. 동거하고 있는 가족의 구성형태는 노부부 둘만 사는 경우가 242명(78.6%)이었고,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66명(21.4%)이었다(Table 1). 성 생활 여부에 대한 응답은 수행하는 대상자는 180명(55.9%), 하지 않는 경우는 142명(44.1%)이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생활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생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Table 1), 남자의 경우 67.9%가 성 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 여자는 33.6%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35.03, p<.001$).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집단보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이 더 유의하게 성 생활의 비율이 높았으며($\chi^2=29.45, p<.001$), 경제상태가 높은 집단의 성 생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chi^2=7.36, p=.025$). 그러나 연령대, 종교 유무 및 동거 가족형태에 따른 성 생활 여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태도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태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Table 2), 여자가 남자보다 성 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t=-5.47, p<.001$),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이 75세 미만의 노인보다 성 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t=-2.31, p=.021$), 중졸 이하의 학력자가 고졸 이상보다 성 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t=5.16, p<.001$). 경제 상태에서는 하위권이 상위권보다 성 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F=3.17, p=.043$), 성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집단이 성 생활을 하는 집단보다 성 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t=4.99, p<.001$). 그러나 종교와 동거 가족형태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1. Sexual Life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22)

Characteristics	Categories	Sexual life			χ^2	p
		Total	Yes	No		
		n (%) or M±SD	n (%)	n (%)		
Gender	Male	209 (64.9)	142 (67.9)	67 (32.1)	35.03	< .001
	Female	113 (35.1)	38 (33.6)	75 (66.4)		
Age (year)		72.58±5.14			1.75	.186
	≤ 74	210 (65.2)	123 (58.6)	87 (41.4)		
	≥ 75	112 (34.8)	57 (50.9)	55 (49.1)		
Education	≤ Middle school	145 (45.0)	57 (39.3)	88 (60.7)	29.45	< .001
	≥ High school	177 (55.0)	123 (69.5)	54 (30.5)		
Religion	No	78 (24.2)	40 (51.3)	38 (48.7)	0.89	.345
	Yes	244 (75.8)	140 (57.4)	104 (42.6)		
Economy	High	35 (10.9)	25 (71.4)	10 (28.6)	7.36	.025
	Middle	236 (73.5)	133 (56.4)	103 (43.6)		
	Low	50 (15.6)	21 (42.0)	29 (58.0)		
Residence	Couple	242 (78.6)	142 (58.7)	100 (41.3)	1.59	.207
	With children	66 (21.4)	33 (50.0)	33 (50.0)		

4. 성 태도가 성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 특성과 성 태도가 성 생활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일반적 특성의 성별, 연령대, 학력, 종교 유무, 경제상태, 동거 가족형태를 가변수(dummy variable)로 변환하여 모형 I에 모두 투입한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들을 하나씩 제거하며 탐색적으로 독립변수를 분석하였다. 모형 II에서는 유의한 일반적 특성 변수에 성 태도를 추가로 투입하여 성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Table 3).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일반적 특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한 모형 I에서는 성별(b=

1.42, $p < .001$)과 연령대($b=0.75$, $p=.007$), 학력($b=0.87$, $p=.001$)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변수들은 제거되었다. 성별, 연령대 및 학력으로 구성된 모형 I의 설명량은 21.8%였으며, 절편만 있는 모형보다 모형 I의 -2LL 값이 유의하게 감소하여($\chi^2=573.31$, $p < .001$) 모형 I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모형 I의 일반적 특성에 성 태도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 II의 적합도는 -2LL 값이 모형 I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고($\chi^2=5.33$, $p=.021$), 모형의 설명량도 증가하여 23.7%로 나타나 모형 II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모형 II에서 성 태도($b=-0.02$, $p=.023$)는 성 생활 유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모형인 모형 II를 기준으

Table 2. Sexual Attitude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22)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	p	Scheffé test
Gender	Male	95.55±19.70	-5.47	< .001	
	Female	108.30±20.43			
Age (year)	≤74	98.08±21.39	-2.31	.021	
	≥75	103.67±19.32			
Education	≤Middle School	106.53±22.15	5.18	< .001	
	≥High School	94.69±18.09			
Religion	No	98.37±20.35	-0.81	.421	
	Yes	100.55±21.00			
Economy	High	92.56±26.84	3.17	.043	High < Low
	Middle	100.37±19.88			
	Low	103.90±19.76			
Residence	Couple	99.94±21.27	-0.24	.815	
	With children	100.62±20.32			
Sexual life	No	106.31±20.06	4.99	< .001	
	Yes	95.06±20.14			

Table 3. Effects of the Sexual Life o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exual Attitude (N=322)

Variables (ref.)	Model I				Model II			
	b	SE	p	OR (95%CI)	b	SE	p	OR (95%CI)
Constant	-1.61	0.32			0.14	0.83		
Gender (female)	1.42	0.29	< .001	4.12 (2.36~7.20)	1.26	0.29	< .001	3.52 (1.98~6.25)
Age (≥75)	0.75	0.28	.007	2.11 (1.23~3.62)	0.63	0.28	.024	1.88 (1.08~3.26)
Education (≤middle school)	0.87	0.25	.001	2.39 (1.45~3.93)	0.77	0.26	.003	2.17 (1.31~3.60)
Sexual attitude (negative)					-0.02	0.01	.023	0.98 (0.97~0.99)
-2LL (χ^2 , p)				384.59 (57.34, < .001)				379.23 (5.33, .021)
Nagelkerke R ²			.218				.237	

OR=odds ration; CI=confidence interval; ref.=reference; -2LL=-2 log likelihood.

로 각 변수들의 승산비(Odds Ratio, OR)를 살펴보면, 여자를 기준으로 남자가 성 생활을 수행하는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OR)이 3.52배 높았고(OR=3.52, 95%CI=1.98~6.25), 75세 이상의 고령자보다 75세 미만의 노인들이 1.88배 높았다(OR=1.88, 95%CI=1.08~3.26). 또한 중졸 이하의 집단보다 고졸 이상의 집단이 2.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OR=2.17, 95%CI=1.31~3.60), 성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성 생활을 수행할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OR=0.98, 95%CI=0.97~0.99).

5. 성 태도가 성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 연령, 학력의 조절효과

성 태도가 성 생활 유무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 연령 및 학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상호작용항은 성 태도를 평균을 기준으로 중심화(centering)한 후 일반적 특성과 곱하여 구성하였고, 위계적 회귀분석의 2단계에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Table 4).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II는 모형 I 보다 -2LL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chi^2=5.14, p=.023$), 상호작용항도 유의하게 나

타나($b=-0.01, p=.030$)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최종 모형의 설명량은 18.1%였다. 연령대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결과에서도 모형 I보다 -2LL 값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chi^2=9.25, p=.004$), 상호작용항은 유의하게 나타나($b=-0.02, p=.004$) 연령대의 조절효과가 있었으며, 최종 모형의 설명량은 8.8%였다. 학력에 따른 조절효과 검증결과, 모형 I보다 -2LL 값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chi^2=5.59, p=.018$), 상호작용항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b=-0.01, p=.018$) 학력에 따른 조절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고, 최종 모형의 설명량은 16.6%였다. 성 태도와 성 생활 간의 관계에서 성별, 연령 및 학력의 조절효과가 모두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6. 성 태도와 성 생활 간의 관계에서 나타난 조절효과의 사후 단순 기울기 검증

성 태도와 성 생활 간의 관계에서 성별, 연령, 학력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조절변수의 각 집단 별로 성 태도가 성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조절변수의 집단 간 성 태도와 성 생활 간의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성 태도의 회귀계수의 기울기를 비교하였다(Table 5). 먼저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남자 집단

Table 4. Moderating Effect of General Characteristic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Attitude and Sexual Life (N=322)

Moderate variables	Variables (ref.)	Model I			Model II		
		b	SE	p	b	SE	p
Gender	Gender (female)	1.34	0.25	<.001	1.20	0.26	<.001
	Sexual attitude (negative)	0.60	0.24	.013	0.06	0.34	.858
	Gender×ASA				-0.01	0.01	.030
	-2LL (χ^2, p)	400.33 (41.56, <.001)			395.20 (5.14, .023)		
	Nagelkerke R ²	.162			.181		
Age (year)	Age (≥75)	-0.22	0.24	.363	-0.15	0.25	.555
	Sexual attitude (negative)	-0.38	0.12	.001	-0.01	0.17	.938
	Age×ASA				-0.02	0.01	.004
	-2LL (χ^2, p)	429.34 (12.55, .002)			420.09 (9.25, .002)		
	Nagelkerke R ²	.051			.088		
Education	Education (≤middle school)	1.18	0.24	<.001	1.07	0.24	<.001
	Sexual attitude (negative)	0.64	0.24	.007	0.03	0.35	.937
	Education×ASA				-0.01	0.01	.022
	-2LL (χ^2, p)	404.78 (37.12, <.001)			399.19 (5.59, .018)		
	Nagelkerke R ²	.146			.166		

ASA=Aging Sexual Attitude; -2LL=-2 log likelihood.

Table 5. Verification of Simple Slope between Sexual Attitude and Sexual Life according to Gender, Age, and Education (N=322)

Variables	Categories	b	SE	Constant	p
Gender	Male	0.37	0.30	0.54	.217
	Female	1.03	0.41	-1.12	.013
Age (year)	≤ 74	0.88	0.29	-0.13	.002
	≥ 75	0.52	0.39	-0.19	.174
Education	≤ Middle school	1.03	0.35	-0.90	.003
	≥ High school	0.30	0.33	0.65	.366

의 경우 성 태도가 성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b=0.37, p=.217$), 여자의 경우 성 태도가 성 생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1.03, p=.013$). 연령대의 경우 75세 미만 집단은 성 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0.88, p=.002$),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b=0.52, p=.174$). 마지막으로 학력에서는 중졸 이하의 집단에서는 성 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1.03, p=.003$), 고졸 이상의 집단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b=0.30, p=.366$). 이상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여성노인과 75세 미만의 노인,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노인 집단에서 부정적인 성 태도가 성 생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노인의 성 태도가 성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 연령, 학력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부정적인 성 태도는 성 생활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성 태도 측정도구가 다르지만 긍정적인 성 태도와 성 생활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연구결과(Beckman et al., 2014; Ra & Kim, 2011)와 일치하였다. Yoo (2009)의 연구에서는 성 태도와 성 생활 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Ra와 Kim (2011)은 성 생활을 하는 노인이 성 생활을 하지 않는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고, 이때 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성 태도를 갖는 경우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검증하였다. 성(Sexuality)은 남성과 여성이 전반적인 삶을 통해 경험하는 정서적, 육체적 친밀감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노화와 성적 활동에 대한 언론과 일반 대중들의 인식과 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Lochlainn & Kenny, 2013). 노인은 성에 대한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편견과 노인의 성을 바라보

는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할 수 있는 홍보와 교육을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 노인 관련 전공자, 언론사들의 관심과 대응이 매우 필요하다.

노인의 부정적인 성 태도가 성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여성노인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은 성 태도가 부정적이어도 성 생활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여성노인은 성 태도에 따라서 성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성 태도가 차이가 있었고(Lee et al., 2013; Park, 2006), 성별에 따라 성 생활에 차이가 있었다(Arias-Castillo, Ceballos-Osorio, Ochoa, & Reyes-Ortiz, 2009; Lindau et al., 2007; Lindau & Gavrilova, 2010; Park, 2013; Syme et al., 2012). 반면 Yoo (2009)의 연구에서는 성별이 성 태도와 관련이 없었으나, 성 생활 여부에는 차이가 있었다. 남성노인들은 약물복용, 운동, 건강식품 이용, 외도 등 적극적으로 성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여(Lee & Kim, 2009; Lindau et al., 2007), 본 연구에서 남성노인의 성 생활(67.9%)이 여성노인(33.6%)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과 여자를 기준으로 남자가 성 생활을 수행할 확률이 3.52배나 높은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Gang과 Park (2003)은 한국 노인의 성은 남성 중심적이며 여성에게 억압이 존재하는 이중적인 가치관으로 인해 여성들에 대한 성 기피 교육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Arias-Castillo 등(2009)은 성 욕망과 성 생활 사이의 관계에서 성별이 매개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부정적인 성 태도와 성 생활 여부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볼 때, 여성노인을 중심으로 한 성 교육이 시급하며, 여성노인들도 스스로 만족스러운 성 생활이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편견과 부정적인 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긍정적인 성 태도 형성을 위한 적절한 교육방법을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요구된다.

노인의 성 태도가 성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서 연령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75세를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

누었을 때 75세 미만인 노인은 성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성 생활이 저하되지만, 75세 이상의 노인은 성 태도에 따라 성 생활에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노인 집단에서 연령이 어릴수록 성 태도가 긍정적이고(Lee et al., 2013; Yoo, 2009), 연령이 어릴수록 성 생활 유지와 관련이 있는(Jeong, 2009; Park, 2013; Yoo, 2009) 연구결과들과 일치하였다.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 요즘, 75세 미만의 연소 노인은 성 태도와 성 생활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의 영향이 있으므로, 안전한 성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노인전문 성 상담 및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의 성 생활이 가능한 연령에 대한 조사에서 남성노인은 60세에서 79세까지가 97.6%, 80세 이상도 2.3%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노인은 60세에서 69세까지가 82.4%로 나타나(Park, 2006) 여성노인의 경우 60대로 한정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연령의 증가에 따라 성 욕구 및 성 생활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연령 증가가 성 생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인의 성 태도가 성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노인이 성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성 생활에 차이를 보였다. 학력에 따른 노인의 성 태도의 차이(Park, 2006)와 학력에 따른 노인의 성 생활의 차이를 보고한 연구들(Jeong, 2009; Park, 2013; Syme et al., 2012; Yoo, 2009)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Lee 등(2013)의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여가생활을 할 경우, 건강할수록 성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학력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졸 이하의 노인보다 고졸 이상의 노인이 성 생활을 수행할 확률이 2.17배 높은 것을 볼 때, 우리나라 노인들은 공식적인 성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하며, 노인의 성 지식이 높을수록 건전하고 긍정적인 성 태도와 건강한 성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Park & Park, 2010; Yoo, 2009),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노인의 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때 노인의 연령대와 학력을 고려한 맞춤형 개별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의 성 생활에 대한 욕구와 이성교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국가적 복지정책이 필요하며, 관련 기관의 종사자들 또한 노인의 성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사전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인해 노인들 스스로도 성적 욕구를 자제하며 성에 대해 담당하지 못한 생활을 살아왔다. 올바른 성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기적인 교육과

관리가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노인의 성적 고민을 다룰 수 있는 임상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Beckman et al., 2014; Lee et al., 2013).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 노인시설에 한정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므로 연구대상과 관련된 일반화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다른 지역의 노인이나 노인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에게 적용할 경우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정적인 성 태도와 성 생활 간의 관계에서 일반적 특성으로만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는데, 노인의 성 생활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성 교육 경험 여부, 여가생활, 건강상태 또는 질병여부를 포함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노인의 성 태도와 성 생활 간의 관계에서 일반적 특성의 조절효과를 밝힘으로써 개념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성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조절변수로 작용했던 성별, 연령, 학력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이론적 근거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론

본 연구는 65세 이상의 유배우자 노인을 대상으로 성 태도가 성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성 태도와 성 생활 간의 관계에서 일반적 특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노인의 부정적인 성 태도는 성 생활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노년기의 성 생활 만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성 태도 형성이 중요함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적 사상과 남성 중심의 성문화의 영향으로 노인의 성 태도와 성 생활 여부에 성별의 차이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노인의 성 생활은 67.9%로 여성노인의 33.6%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의 성 태도와 성 생활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있었는데, 여성노인일수록 부정적인 성 태도가 성 생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령과 학력의 조절효과도 확인하였으며 75세 미만의 노인과 중졸 이하의 노인들은 부정적인 성 태도가 성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에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성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성 지식과 긍정적인 성 태도 향상을 위한 성 교육 프로그램 적용이 요구되며, 교육을 적용할 때 조절효과가 있었던 여성노인, 75세 미만의 노인, 중졸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일부 노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으로 한정하였기에, 다른 지역의 노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과 노인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을 포함하여 대규모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노인의 성 생활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성 교육 경험 여부, 여가생활, 건강상태를 조사하여 성 태도와 성 생활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노인의 성 태도와 성 인식의 향상이 실제 노인의 성 생활 여부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는 종단적인 연구를 제안한다.

넷째, 여성노인과 저학력 노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Arias-Castillo, L., Ceballos-Osorio, J., Ochoa, J. J., & Reyes-Ortiz, C. A. (2009). Correlates of sexuality in men and women aged 52-90 years attending a university medical health service in Colombia. *The Journal of Sexual Medicine, 6*(11), 3008-3018. <http://dx.doi.org/10.1111/j.1743-6109.2009.01488.x>
- Beckman, N., Waern, M., Ostling, S., Sundh, V., & Skoog, I. (2014). Determinants of sexual activity in four birth cohorts of Swedish 70-year-olds examined 1971-2001. *Journal of Sexual Medicine, 11*(2), 401-410. <http://dx.doi.org/10.1111/jsm.12381>
- Cho, I. H. (2011). An exploratory study on sexuality of elderly peopl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2*, 391-418.
- Gang, G. H., & Park, B. J. (2003). The case study for the attitudes on sexuality and sexual activity of Korean elderly. *The Journal Welfare for the Aged, 22*, 105-126.
- Ginsberg, T. B., Pomerantz, S. C., & Kramer-Feeley, V. (2005). Sexuality in older adults: Behaviours and preferences. *Age and Ageing, 34*(5), 475-480. <http://dx.doi.org/10.1093/ageing/afi143>
- Jeong, J. Y. (2009). A study of the old's culture in modern society. *Korean Thought and Culture, 50*, 607-633.
- Jung, M. S., & Na, I. S. (2004). A study on the program development to educate the sexuality counsellors for the aged.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13*, 189-213.
- Korea Gerontology Forum. (2010). *Gerontology scale*. Seoul: House of Sharing. p. 350-356.
- Kweon, M. S. (2002). *An exploratory study on sexuality of elderly peop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C. S., & Lee, Y. O. (2009). A study of casual relationship about depression and sex cognition for the aged. *Journal of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19*(2), 27-48.
- Lee, D. H. (2012). *Survey of the regional elderly safe sex*. Safety Report. Seoul, Korean Consumer Agency; 2012 [cited 2013 June 5]. Available from: <https://www.kca.go.kr/modules/board/view.jsp?&gotopage=2&menuNo=307&boardConfigNo=154&CategoryNo=&ctx=&pagesize=15&sk=boardTitle&sv=%BE%C8%C0%FC&boardNo=35097>
- Lee, H. S. (2010). A study on married elderly women's sex lif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48*, 151-176.
- Lee, H. S., & Kim, S. Y. (2009). Qualitative study on men's sex life in old ag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45*, 207-234.
- Lee, S. J., Lee, Y. S., & Kim, Y. E. (2013). The degree of elderly sexual desire and their attitudes towards sex.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10*(1), 1-21.
- Lindau, S. T., & Gavrilova, N. (2010). Sex, health, and years of sexually active life gained due to good health: Evidence from two US population based cross sectional surveys of ageing. *BMJ, 340*, 1-11. <http://dx.doi.org/10.1136/bmj.c810>
- Lindau, S. T., Schumm, L. P., Laumann, E. O., Levinson, W., O'Muirheartaigh, C. A., & Waite, L. J. (2007). A study of sexuality and health among older adults in the United States.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57*(8), 762-774.
- Lochlainn, M. N., & Kenny, R. A. (2013). Sexuality activity and aging.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Directors Association, 14*(8), 565-572. <http://dx.doi.org/10.1016/j.jamda.2013.01.022>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2013). *2012 Yearbook of Health & Welfare*. Seoul. p. 298-333.
- Park, H. J. (2013). Sexual behavior and awareness on STD in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5*(1), 83-94. <http://dx.doi.org/10.7475/kjan.2013.25.1.83>
- Park, M. H., & Park, M. H. (2010). Effects of sex education on elders' knowledge and attitude regarding sexuality. *Journal Korean Gerontology Nursing, 12*(1), 62-71.
- Park, T. R. (2006). Research of the attitudes toward the sexuality of the older persons. *Journal of Social Welfare Development, 12*(3), 235-249.
- Penhollow, T., Young, M., & Denny, G. (2009). Predictors of quality of life, sexual intercourse, and sexual satisfaction among active older adults. *Americ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40*, 14-22.
- Ra, D. S., & Kim, Y. D. (2011). The impact of elderly's sexual life and sexual attitude on their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2*, 185-204.
- Rheume, C., & Mitty, E. (2008). Sexuality and intimacy in older adults. *Geriatric Nursing, 29*(5), 342-349. <http://dx.doi.org/10.1016/j.gerinurse.2008.08.004>
- Suh, J. A. (2012). Sexual culture in sexuality counselling cases for the Korean older people.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21*, 59-75.

- Syme, M. L., Klonoff, E. A., Macera, C. A., & Brodine, S. T. (2012). Predicting sexual decline and dis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The role of partnered and individual physical and mental health factors.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8*(3), 323-332. <http://dx.doi.org/10.1093/geronb/gbs087>
- Waite, L. J., Laumann, E. O., Das, A., & Schumm, L. P. (2009). Sexuality: Measures of partnerships, practices, attitudes, and problems in the national social life, health, and aging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64*(S1), i56-66. <http://dx.doi.org/10.1093/geronb/gbp038>
- White, C. B. (1982). A scale for the assessment of attitude and knowledge regarding sexuality in the aged. *Archives of Sexual Behavior, 11*(6), 491-502.
- Yoo, S. Y. (2009).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among older adults. *Nursing Science, 21*(2), 63-74.
- Youn, G. H. (2004). Elderly people and sexuality: Marriage and singlehood. *Korean Journal of Social Issues, 7*, 113-130.